



◀공공부문 최우수작
'리모델링된 광주 중앙도서관'
▶비주거 최우수작 '연경'



시·공간 넘어 ‘건축’으로 연결된 도시

도시건축문화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제의장이 열린다.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이들의 연합단체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매년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산·학·관·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주제는 ‘건축, 시간과 공간 - 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로, 건축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문화제는 본행사 전날인 20일 저녁 ‘건축인의 밤’으로 문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으로 양

‘광주건축도시문화제’…21~24일 광주시청 시민홀

광주시 건축상·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등 전시

동협(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를 추대한다.

올해 광주건축상 수상작은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상 ‘광주 중앙도서관’,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양립 돌’, ‘연경’ 등 총 8개 작품이며,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에는 ‘오방 최흥종 기념관’과 ‘광주시민의 숲’이 선정됐다.

전시 프로그램은 ▲제22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 ▲202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시민대상 사생대회 수상작 ▲사진공모전 수상작 ▲다시·도 건축상 교류전 ▲우수건축가작

품전 ▲2025장애헤임시설만들기작품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건축 사진가로 잘 알려진 이동희 순천대 교수 초대전이 마련된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스위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주요 작품과 그에게 감명을 준 수도원 풍경, 그를 존경했던 안도 타다오 작품을 독특한 감성으로 포착해낸 사진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무등산이 건축이 된다!’를 주제로 열린 사생대회 우수작품도 전시된다.

김종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은 “지역 건축인뿐 아니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과 미래의 건축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모두가 건축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가·무·악’ 흥겨운 우리 가락 ‘한자리’

내일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공연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가·무·악 종합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열리는 ‘국악의 향연’ 무대다.

이날 공연에서는 기악합주 ‘산조합주’, 무용 ‘살풀이’, 민요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사물놀이 ‘김오재류 선반설장구’ 등 6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남도 시나위와 판소리에서 발전한 독주곡인 산조를 합주 방식으로 선보이는 ‘산조합주’로 문을 연다.

이어 가야금병창 ‘편시춘’, ‘가자어서가’, 대금독주 ‘청성곡’, ‘살풀이춤’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도 남도민요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다양한 가락과 발제간이 돋보이는 ‘김오재류 선반설장구’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공연은 무료.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32강〉 5. 수천수(水天需) 下

수괘 육사의 효사는 ‘수우혈, 출자혈’(需于血 出自穴)이다. 즉 ‘피에서 기다리고 구멍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수지괘(四動)	
수천수	택천괘

사효는 음위에 음효로 이미 감수의 험난 속에 빠졌다. 다행히 유순정위(柔順正位)에서 구오와 친비해 혈투의 이수라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벗

어나는 길이 있다.

수괘(需卦)는 기다림의 괘로 내괘 건(乾)이 나아가는 것을 외괘 감수가 막고 있는데 육사의 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 감수의 험 중에 빠져 살려 달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수우혈(需于血)이다.

험중(險中)에 빠져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것이 감수의 상이다. 함험(陷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내괘 삼양효(三陽爻)가 나아가서 구해주는 것이 출자혈(出自穴)이다. 이를 상전(象傳)에서는 내괘 삼양이 들고 따라 간다해 ‘순이정야’(順以聽也)라 말한다. 혈(穴)은 구멍, 집, 직장, 아픈 부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집을 이사 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 출자혈(出自穴)이니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사효는 피를 흘리며 기다리는 시기(需于血 수술)로 손해와 희생을 통해 오효에서 험난한 구멍(出自穴)으로부터 탈출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수괘 육사(需卦)는 하(하리수)가 하(하리수)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능히 전신에 해를 멀리하고, 총애나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則能全身遠害而寵辱不可/죽은전신원해 이 총욕불가). 선비는 국립고에서는 가히 출신성명하고 지방인 죽 뜻을 얻지 못한다(則國學者 可出身以成名, 府州則不得志意矣/죽국학자 기출신이성명 부주죽불득지의의). 서숙은 상해는 지나가고 점점 평복되며 감옥에서는 나오게 된다(則傷害去而平復地有漸 在囹圄者漸/죽상해거 이평복지유점 재영어자신). 오래 머문 자는 멀리 떠나고 나그네는 귀속함이 없어 돌아온다(舊淹者伸 旅處者無羈絆/구원자신 러저자기부만/淹 담길, 머무름 얻). 수홍자(數凶者)는 조용한 가운데 되보해야 하고 한가한 중에도 시끄러움이 생기며 혹은 다투는 일 혹은 불기 맞는 형벌이 있고 혹은 혈고의 난산과 혹은 장사의 병원이 있으며 혹은 영어를 잃게 된다(則靜中退步 閑中生鬧 或爭競難刑 或血難難產 或經長上 或損嬰兒/죽경중되보 한중생로 혹경경면형 혹혈고난 산 혹우장상 혹순영아/鬧 시끄러울로 難 재책 락)를 만난 때에는, 해산, 연대채무 등으로 흉(凶)한 상황에 빠져 있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 나와야 한다. 배를 가르니 혈(血)이고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된다. 즉 혈(血)이 선혈(鮮血)이고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나오는 산혈(產血)이 아니니 제왕절개 해서 낳게 된다.

손해, 파산, 채무책임, 장애 등의 곤궁에 빠져 있으나 철저하게 나빠지지는 않고 공통의 길(구멍 穴)은 있어 빠져 나오기는 하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바람, 사업, 취직, 전업 등도 이뤄지지 않는다. 임태는 난산으로 늦어지며 다량의 출혈(需于血)이 있으나 목숨에 지장은 없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가출인, 분실물 등은 상처를 입어 늦어지거나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돼 돌아온다.

병세는 변해 괘괘(卦)가 되고 육사는 가슴 밑 부분에 해당하니 호흡곤란, 불식구토(不食嘔吐), 객혈, 구의

통증 등으로 속히 수술이 필요하다(出自穴 產血). 낳씨는 어렵고 구름이 끼어 비가 올 듯하다.

사효를 만나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거나 내 것을 때려 주거나 해 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 나와야 하고 재물과 건강은 좋지 않으니 오효의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실점에’로 ‘60대 병원 입원환자의 치유 퇴원 가부’를 문점하자, 육사를 득괘하고 점단하기를 ‘하혈’(需于血)할 것이고 4월 후 완쾌 퇴원(出自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과 역시 그러했다.

‘난산 중인 임신부의 안산(安産) 여하’의 ‘실점에’에서 ‘수괘 육사’를 얻고 점고하기를 ‘수괘는 구오의 기다림을 낙(樂)으로 하나 상효의 기다림은 입우혈(入于穴)로 흥하고 구삼은 음문(陰門)의 위치에 있으므로 양효가 음효로 변한다면 안산(安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사의 위치는 복부에 해당해 모체를 절개하는 상이다. 구사 효사의 수우혈(需于血)의 혈(血)은 출산할 때의 산혈(産血)이 아니고 외과적 수술할 때의 선혈(鮮血)이며 출자혈의 혈(穴)은 음문이 아닌 절개구(切開口)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사를 얻음은 제왕절개의 외과 수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오의 행복을 기다리거나 기다리다가 지체돼 상효의 입우혈(入于穴)에 도달하면 결국 모자(母子) 모두 황천(黃泉)의 객이 되니 서둘러 복부를 절개해 출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한 결과, 아이는 죽고 산부의 생명을 구했다.

수괘 구오의 효사는 ‘수우주식, 정길’(需于酒食 貞吉)이다. 즉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린다. 바르면 길하다’는 뜻이다.

수지태(五動)	
수천수	지천태

오효는 강건중정의 지존(至尊)의 자리이다. 하괘의 삼양효가 구하러 오는 것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제 수괘의 오효 주괘주에 이르니 드디어 비가 오고 기다리는 사람도 오는 등 바라는 바가 이뤄지는 때이다. 여기서 ‘바르면 길하다(貞吉)’고 한 것은 술과 음식이 과해 쾌락에 빠지면 안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구오는 강건중정(剛健中正)의 군위(君位)의 효로서 사려심이 깊어 급하게 구하지도 않고 느긋한 자세로 때를 기다리는 효에 해당하니 원하는 것이 이뤄지는 시기로서 단전(家傳)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니 빛나고 형통하다(需有孚 光亨)’고 했다.

상전에서는 ‘술과 음식을 먹으며 기다리는 시기이고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라고 해 ‘주식정길 이증정야’(酒食貞吉 以中正也)라고 말한다.

점사에서 입서해 수괘 구오(需卦)는 하(하리수)가 하(하리수)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능히 전신에 해를 멀리하고, 총애나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則能全身遠害而寵辱不可/죽은전신원해 이 총욕불가). 선비는 국립고에서는 가히 출신성명하고 지방인 죽 뜻을 얻지 못한다(則國學者 可出身以成名, 府州則不得志意矣/죽국학자 기출신이성명 부주죽불득지의의). 서숙은 상해는 지나가고 점점 평복되며 감옥에서는 나오게 된다(則傷害去而平復地有漸 在囹圄者漸/죽상해거 이평복지유점 재영어자신). 오래 머문 자는 멀리 떠나고 나그네는 귀속함이 없어 돌아온다(舊淹者伸 旅處者無羈絆/구원자신 러저자기부만/淹 담길, 머무름 얻). 수홍자(數凶者)는 조용한 가운데 되보해야 하고 한가한 중에도 시끄러움이 생기며 혹은 다투는 일 혹은 불기 맞는 형벌이 있고 혹은 혈고의 난산과 혹은 장사의 병원이 있으며 혹은 영어를 잃게 된다(則靜中退步 閑中生鬧 或爭競難刑 或血難難產 或經長上 或損嬰兒/죽경중되보 한중생로 혹경경면형 혹혈고난 산 혹우장상 혹순영아/鬧 시끄러울로 難 재책 락)를 만난 때에는, 해산, 연대채무 등으로 흉(凶)한 상황에 빠져 있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 나와야 한다. 배를 가르니 혈(血)이고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된다. 즉 혈(血)이 선혈(鮮血)이고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나오는 산혈(產血)이 아니니 제왕절개 해서 낳게 된다.

中書中順, 正字即奉正 言正即正 正字/중사대중 중서 중순 정자 즉봉 정언정 즉정 배정자)를 얻으면, 무리하지 않아도 일이 성취된다.

여유와 도량으로 연락(宴樂)에 빠지지 않고 일하면 많은 사람과 친하게 돼 존경을 받고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

구오가 변하면 지천태(地天泰)괘가 돼 바람, 사업, 혼인, 잉태 등이 성사돼 술과 음식으로 축하연을 열게 되는 등의 일이 있다.

가다리는 사람은 조금 늦지만 오고 가출인은 돌아오며 분실물은 나타난다(必變坤).

병점에서는 안위(安危)의 분기점을 넘어 완쾌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곧 건강의 기쁨을 볼 수 있지만, 소강(小康)을 얻어도 빠르게 양생(養生)하지 않으면 재발의 우려가 있고 한층 악화될 수가 있다. 그 악화의 원인은 식사와 절제 부족 탓이고 다시 불식(不食)의 상태에 들어서면 위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식욕(食慾)이 남아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수괘의 구오가 변하면 상하괘가 반대인 유혼괘(遊魂卦)가 되기 때문에 병점에서 위태롭다고 판단한다. 낳씨는 맑고 흐림을 반복하면서 비가 올 수 있다.

‘실점에’로 ‘어느 여인의 한 해 운세 여하’를 문점하자 구오를 득괘하고 점고하기를, ‘그동안 고생했던 일이 풀리고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일이 이뤄진다. 구오가 변하면 감수 외괘가 곤지 평지가 되니 어려운 고생이 끝나고 지체가 지천태가 돼 천지개태(天地開泰)해 부부음양상교(夫婦陰陽相交) 하니 앞으로 5개월 후인 음력 미신월(未申月, 坤土)에 강,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던 가군(家君)이 돌아와 함께 회포를 풀고 큰 경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인 즉, 이 여인은 해방 전에 일본에서 나오다가 오랫동안 헤어진 남편과 8·15특사로 만나게 된 것이다.

구오에서는 그동안 기다리고 학수고대(鶴首苦待)했던 일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중국 전한(前漢)의 말기에 당시 황제의 섭정이었던 왕망(王莽)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간택될 것인가’를 물어 수괘 구오가 동해 ‘수지태’(需之泰)를 얻었다. 수괘 구오는 수괘의 상괘주 구괘주인 자리로서 그동안 학수고대하게 기다려 왔던 바라는 일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더욱이 변괘가 지천태로 태괘는 건(乾)과 곤(坤)이 만나는 부모모태이니 왕비로 간택되는 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수괘 상효의 효사는 ‘입우혈, 유불속지객삼인래, 경지종길’(入于穴, 有不速之客三人來, 敬之 終吉)이다. 즉 ‘구멍으로 들어간다. 초청하지 않은 세 명의 손님이 찾아온다. 공경하면 마침내 길하다’는 의미이다.

수지소속(上動)	
수천수	풍천소속

상효는 육사와 같이 감수의 음효이고 구멍의 상이다. 육사는 구멍에서 나온다(出自穴)고 했고 상효는 구멍으로 들어간다(入于穴)고 해 출입이 서로 다르다. 상효는

외괘의 끝에 있고 나갈 데가 없다. 그래서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속객삼인’(速客三人)은 내괘의 삼양효를 말하며 상효이 초청하지 않았으나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상효를 찾아 가는 것이다.

상효는 유순(柔順)의 음효이니 삼양효가 오는 것을 막지 못해 공격 대접하면 길을 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삼양효를 대접하는 것은 주식정길(酒食貞吉)의 구오의 효이나 상효는 구오를 대신해 수의 괘가 끝나는 위치로 자리가 마땅치는 않지만 접대하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이를 ‘비록 자리가 마땅하지 않지만 존경 대접하면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수불당위미대실야’(雖不當位未大失也)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상효는 넘어가고 지나가는 자리이나 상효는 위험의 극단(極端)에 있기 때문에 구멍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들과 동업해 그들의 힘을 빌려 헤쳐 나가면 길하다. 그러나 좋은 삼인과 나쁜 삼인이 오니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상효(需卦)는 하(하리수)가 하(하리수)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능히 전신에 해를 멀리하고, 총애나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則能全身遠害而寵辱不可/죽은전신원해 이 총욕불가). 선비는 국립고에서는 가히 출신성명하고 지방인 죽 뜻을 얻지 못한다(則國學者 可出身以成名, 府州則不得志意矣/죽국학자 기출신이성명 부주죽불득지의의). 서숙은 상해는 지나가고 점점 평복되며 감옥에서는 나오게 된다(則傷害去而平復地有漸 在囹圄者漸/죽상해거 이평복지유점 재영어자신). 오래 머문 자는 멀리 떠나고 나그네는 귀속함이 없어 돌아온다(舊淹者伸 旅處者無羈絆/구원자신 러저자기부만/淹 담길, 머무름 얻). 수홍자(數凶者)는 조용한 가운데 되보해야 하고 한가한 중에도 시끄러움이 생기며 혹은 다투는 일 혹은 불기 맞는 형벌이 있고 혹은 혈고의 난산과 혹은 장사의 병원이 있으며 혹은 영어를 잃게 된다(則靜中退步 閑中生鬧 或爭競難刑 或血難難產 或經長上 或損嬰兒/죽경중되보 한중생로 혹경경면형 혹혈고난 산 혹우장상 혹순영아/鬧 시끄러울로 難 재책 락)를 만난 때에는, 해산, 연대채무 등으로 흉(凶)한 상황에 빠져 있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 나와야 한다. 배를 가르니 혈(血)이고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된다. 즉 혈(血)이 선혈(鮮血)이고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나오는 산혈(產血)이 아니니 제왕절개 해서 낳게 된다.

점사에서 입서해 수괘 구오(需卦)는 하(하리수)가 하(하리수)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능히 전신에 해를 멀리하고, 총애나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則能全身遠害而寵辱不可/죽은전신원해 이 총욕불가). 선비는 국립고에서는 가히 출신성명하고 지방인 죽 뜻을 얻지 못한다(則國學者 可出身以成名, 府州則不得志意矣/죽국학자 기출신이성명 부주죽불득지의의). 서숙은 상해는 지나가고 점점 평복되며 감옥에서는 나오게 된다(則傷害去而平復地有漸 在囹圄者漸/죽상해거 이평복지유점 재영어자신). 오래 머문 자는 멀리 떠나고 나그네는 귀속함이 없어 돌아온다(舊淹者伸 旅處者無羈絆/구원자신 러저자기부만/淹 담길, 머무름 얻). 수홍자(數凶者)는 조용한 가운데 되보해야 하고 한가한 중에도 시끄러움이 생기며 혹은 다투는 일 혹은 불기 맞는 형벌이 있고 혹은 혈고의 난산과 혹은 장사의 병원이 있으며 혹은 영어를 잃게 된다(則靜中退步 閑中生鬧 或爭競難刑 或血難難產 或經長上 或損嬰兒/죽경중되보 한중생로 혹경경면형 혹혈고난 산 혹우장상 혹순영아/鬧 시끄러울로 難 재책 락)를 만난 때에는, 해산, 연대채무 등으로 흉(凶)한 상황에 빠져 있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 나와야 한다. 배를 가르니 혈(血)이고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된다. 즉 혈(血)이 선혈(鮮血)이고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나오는 산혈(產血)이 아니니 제왕절개 해서 낳게 된다.

상전에서는 ‘술과 음식을 먹으며 기다리는 시기이고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라고 해 ‘주식정길 이증정야’(酒食貞吉 以中正也)라고 말한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오전)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가양성

